

그룹 'jigum 5'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 작가·작품 소개...가상 공간에 이미지 연출



김상연·정철호 작가 운영...전현숙·윤세영·조성숙 등 15명 작가 작품 입점

'아트 포스터'로 만나는 지역작가 작품



김상연 작 '탑'

"제가 수집하는 것을 좋아해요. 국내의 미술관이 나 박물관에 갈 때면 작품은 가격 때문에 엄두를 못 내니 관련 포스터나 노트 등 아트상품을 구입하고는 했어요. 어떨 때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도 있었죠.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직접 아트 포스터로 직접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우리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철호)

'jigum 5'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공간(https://smartstore.naver.com/jigum5)을 마련하고 상설 판매를 시작했다. 동화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최순임 작가, 유쾌한 여성의 이미지가 인상적인 전현숙 작가, 다양한 도시의 풍경을 선보인 조근호 작가를 비롯해 박일구·안희정·윤석문·조성숙·이두환·윤세영·김하솔 등 15명 작가의 작품을 A1(60x85cm), A3(29.7 x 42 cm) 크기로 제작해 판매중이며 이번 작가장터에서도 선보였다. 인터넷에서는 A3 작품은 액자 없이 2만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가상의 이미지를 연출한 사진을 함께 올려 구입자들의 선택을 돕는다.

"저희 일은 아직 출발 단계죠.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작은 힘이라도 된다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작업을 하고 있는 터라 누구보다 작가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참여작가들도 오픈 마인드로 협조하고 있구요. 아트 포스터를 시작으로 점차 아트상품의 폭을 넓혀갈 생각인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광주는 비엔날레의 도시라 글로벌 작가의 탄생이 그리 어렵지 않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김 작가는 이번 '아트 포스터' 제작과 고정적인 판매 공간 확보가 우리 지역 작가들이 국내외에 좀 더 알려지고, 일반인들이 그림과 친숙해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양림동에서 '아트장터'가 열렸다. 문화공간 '10년 후 그라운드'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 '작가 미술장터 - New wave of local arts-광주'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개최 여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전시회를 열 수 있었고, 80여명의 작가가 25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장에서는 실물 작품과 함께 몇몇 작가들의 '아트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크기에 따라 5만원-15만원(액자 포함) 정도의 가격이 붙어 있는 포스터는 큰 부담이 없어 집안에 하나 걸어도

면 좋겠다 싶었다.

이번 장터의 기획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화가 김상연 작가와 정철호 사진작가다. 김 작가는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장터 사업을 진행했고 우수장터로 뽑히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늘 아쉬움이 있었다. 그가 고민했던 건 '지속가능성'이었다.

"아트장터는 컨셉이 명확하죠. 처음부터 판매가 목적입니다. '실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몇년 동안 성과가 괜찮았지만 늘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만다는 데 아쉬움이 있었죠. 또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구요.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가장 좋겠지

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 사람들이 '작품'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자 싶었고, 그 시작이 바로 아트 포스터 작업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김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지난해 초 영국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돌아온 정철호 작가와 의기투합해 'jigum 5'를 꾸렸다. '지금'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아트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는 다섯개의 손가락을 의미한다. 가장 민감한 감각인 '촉각'을 통해 가장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문화기획과 아트 상품 제작 등을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김하솔 작 '꿈속 연주'



이두환 작 '일탈을 꿈꾸는 L씨 #2'



'연잎, 청자비색을 담다'

강진아트홀 9월 17일까지 김광길 초대전

강진아트홀은 오는 9월 17일까지 김광길 작가의 '연잎, 청자비색을 담다'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

그동안 '내고향 강진전', '남도미술 강진에서 꽃피우다', '다산과 영랑을 품으며' 등 다양한 기획전에 초대됐던 김 작가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고향 강진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청자를 통해 내면을 표현했다. 배경이 되는 큰 캔버스와 입체적인 도예 작품, 그리고 적절한 여백과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설치 작품 '연잎 이야기'는 '연잎'이라는 주제를 '청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김 작가만의 독창성과 감수성으로 표현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김 작가는 대학에서 20여년 간 후진을 양성하다 최근 작가로 전향했다. 서울, 구례, 강진 등에



'Lotus Leaf's Story'

서 연이어 전시회를 개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선도공의 혼이 담긴 남원에서 매년 남원

국제도예캠프를 개최, 한국 도예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주먹밥

있는

'오!

금남식당'

토박이, 9월 4-6일 민들레 소극장...30석 예약제

극단 토박이가 오월레퍼토리극 '오! 금남식당'을 선보인다. 9월 4일 오후 7시30분, 5일 오후 3-5시, 6일 오후 3시, 민들레 소극장.

'오!금남식당'은 1980년 5월을 배경으로 주먹밥으로 한 식구가 됐던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금남관 주인 오금남의 한 맺힌 사연과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광주 사람들이 만들어낸 맛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박정운이 연출을 맡았으며 임해정·송은정·박정운·강종원·고영욱·윤재원 등이 출연한다.

작품은 2016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약 170여 회 관객과 만나 호평을 받았다.

극단 토박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좌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로 진행한다.

1983년 창단한 극단 토박이는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아픔을 알려왔으며 해마다 어린이 연극학교, 청소년 예술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필수. 무료관람. 문의 062-222-6280, 010-3625-393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극단 토박이가 9월4-6일 80년 5월을 배경으로 한 '오! 금남식당'을 선보인다.

어르신들 독서 위한 '큰 글자책'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

어르신들 독서생활을 돕기 위한 큰글자책 27종 1만 8900권이 전국 공공도서관 660곳에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50대 이상이 돋보기안경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큰글자책 사업'을 2009년부터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에 보급된 큰글자책은 242종 13만여권에 이른다.

이번 큰글자책 27종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책 위주로 도서관 빅데이터와 대형 인터넷 서점 판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100세 수업', '2020 부의 지각변동', '90년대생들이 온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 '역사의 역사' 등 경제, 건강, 철학,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2019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글자 크기인 15포인트로 제작했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